

용기와 시

그(아감벤)에게는 우리가 “현재성”으로서 지각하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오직 “위상차와 시대착오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이 동시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시대인이란 현재적 세기의 스펙터클을 어둡게 만들어 이런 어둠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여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빛”을 지각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 아감벤은 이런 임무가 용기—정치의 덕(德)—와 시(詩)를 동시에 요구한다고 덧붙인다. 그가 말하는 시란 언어를 부러뜨리고, 외관을 부수고, 시간의 통일성을 분산시키는 기예이다.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반딧불의 잔존』, 69쪽

* 예술가는 아주 내밀한, 보이지 않는 고통의 결에 있어야 한다. 휩쓸린 시야가 미처 다다르지 못하는 고통, 존재하나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작업을 추구해야 한다.

* 한참 동안 ‘용기와 시’를 시인의, 또는 예술가의 임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감벤이 예술가의 덕목으로 ‘용기와 시’를 꼽았노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막상 원문을 찾아보니 아감벤이 동시대인을 ‘시인 – 또는 예술가’라고 일컬은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착각으로 혼자 그 말을 비장하게 되며 “용기는 무엇이고 시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술가의 태도와 예술의 형식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하며 감탄해 마지않았거늘. 비장했던 몇 년이 갑자기 코미디가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 문장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뿐, 동시대성을 설명하는 아감벤의 어투는 누구보다도 비장하다.

…동시대성이란 거리를 두면서도 들러붙음으로써 자신의 시대와 맺는 독특한 관계이다.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은 시차와 시대착오를 통해 시대에 들러붙음으로써 시대와 맺는 관계이다. 시대와 너무 원전히 일치하는 자들, 모든 점에서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는 자들이 동시대인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까닭에 그런 자들은 시대를 보지 못하고, 시대에 보내는 시선을 고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르주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72쪽

현재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려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이 빛을 지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인은 드물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기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은 시대의 어둠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하지만, 우리에게서 무한히 멀어지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펑크 별 수밖에 없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조르주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79쪽

* 모든 고통은 개인적이다. 고통은 오롯이 혼자 감당하게 되며, 아무리 공감이 뛰어난 사람에게 의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감하여지지도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밖으로 티가 나지 않는 고통은 꾀병이나 염살, 과민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고통도 사회가 인정한 등급에 따라 티를 내도 되거나 내서는 안 되는, 양해를 구할 수 있거나 양해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고 있는가 보다. 어릴 적 혼자 재미로 쓴 소설 중에 사람들의 고통이 그 정도에 따라 점수로 책정되어 신분증에 기재되는 사회를 상상한 것이 있다. 그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의 고통지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상대의 고통지수가 더 높을 경우 상대에게 자신의 고통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아주 큰 실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체포된다. SF소설이 늘 그렇듯이.

*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을 눈으로 쫓다가 기절하고야 말았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볼 때 많은 정보를 흘려보내고 중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뽑아낸다. 그것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며 정의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구름의 미세한 색의 차이들과 소란스러운 움직임은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와

나의 신체와 반응한다. 그 자극이 강할 때 나는 무리함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코피를 쏟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의 얼굴은 나에게 단번에 기억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표정과 피부색은 일정하지 않으며, 눈의 크기도 시시각각 달라진다. 머리카락들도 바람의 결과 습도에 따라 그 모양새를 바꾼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그것을 미처 다 파악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간다. ‘분류할 수 없음’은 한때 나의 즐거움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얼굴이 될 때 나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매너가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 상대방을 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순간의 만남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얼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내 마음과 다르게 반응한다.

* 몸을 의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일이다. 어릴 때야 다들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기 마련일 텐데 나는 멀미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의식으로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렇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위장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나는 멀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나는 버스 안에서 내 몸을 어떻게 적응시켜야 하는지를 터득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다. 버스의 흔들림에 대항해서 버티는 대신 그것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내 몸을 인식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감정적 반응이든 감각적 반응이든 간에. 그것은 공간과 내 몸이 함께 나누는 대화이다.

* 어떤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아니, 보았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 그것을 본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이상하고 명청한 아이로 취급할지도 모르지.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다.

정말 내가 본 것이 맞는지, 자신을 의심하는 편이 더 나았다.

그 후 가끔 몸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역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성인이 되자, 그 고통은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병원에 가봤지만 어떤 진단도 받지 못했다. 아무도 본적도, 느껴본 적도 없는 나의 고통은 이번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단받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곁으로 아무 표시가 나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없을 때 고통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이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한 건가?

* 죽음과 대면하여 웃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얻게 되는 모종의 즐거움도 있다. 죽음을 가지고 농담하면서 죽음의 콧대를 꺾어놓고,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말도 안 되는 명칭라고 생각했지만 따져 묻지는 않았다. 에이섹슈얼은 그렇다 치고,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모로맨스가 어떻게 성립이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인생이란 자신이 무엇인지 파악해나가는 과정이기 마련이니, 그 혼란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성에는 끌리고 어떤 성에는 끌리지 않는다는느니, 아무와도 섹스를 원하지 않는다는느니, 하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말이 되네, 안되네 하며 논쟁을 할 만큼 할 일이 없지도 않았다.

아직도 스스로를 묘사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아직도 찾지 못해서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겠지. 호모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는 이 복잡한 명칭은 그가 얼마나 많은 혼란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잘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그나마의 명칭마저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암시하기도 한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이름을 찾는 데에만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른다. 통쳐 부를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기는 하다. ‘쾌식’.

* 건강했지만 20세 무렵부터 나는 편두통에 시달렸다. 3~4주마다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무척 혼란스러운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데, 한낮이 되면 고통이 가장 심하지만 그래도 정중선(正中線)을 넘지는 않는다. 그 고통은 대개 저녁이 되면 차츰 사라진다. 휴식 중일 때는 견딜만하지만 격렬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고통은 관자동맥(temporal artery)의 맥박에 맞춰 반응한다. 시간이 지나도 반대쪽은 정상이지만 아픈 쪽의 동맥은 여전히 단단한 박줄처럼 느껴진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이 움푹 들어가 버린다. 오른쪽 눈은 작아지고 붉어진다. 발작이 한창일 때는 아주 격렬해지면서 욕지기가 난다... 아마 가벼운 위장장애가 남을 것이다. 다음 날 머리가 죽을 만지면 아플 때가 많다... 발작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예전 같으면 벌써 발작을 일으켰을 만한 영향을 받아도 무사했다.††

* 언어적인 동물은 저 밑바닥까지 부조화스럽다.♣

* 내가 손을 번쩍 들면,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고 귀찮다는 반응을 보인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빠가 나에게 해준 말과는 아주 달랐다. 아빠는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당부해주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고, 나는 아빠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 처음에는 손을 들까 말까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물어보지 않으면 결국 내가 궁금했던 것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역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선생님은 나에게 눈살을 찌푸린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날 싫어한다는 느낌은 학교생활을 어렵게 했다. 학기가 끝나고 받아 온 성적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손들기 전에 세 번 이상

생각해볼 것'. 아빠가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봤던 것인지,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바빴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둘 다 세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겠지. 그해 나 역시,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배웠다.

* 엄마는 나더러 왜 이렇게 나쁜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 좋은 기억은 없느냐고. 이상하게도 없다. 어릴 때부터 불안증이 심했는데(그 원인은 모른다. 아니, 알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발표하는 자리뿐 만 아니라, 누군가와 단둘이 대화를 할 때에도 나는 항상 불안함을 느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대화에서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늘 갈등했고, 그것이 실패하면 '나쁜 년', '못된 년', '재수 없는 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실패는 나쁜 기억으로 남겨지고, 실패하지 않은 순간은 갈등의 기억으로 남았다. 두 살 때 한국전쟁을 겪은 아빠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행기 소리만 나면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한다. 나는 한국전쟁과 같은 거대한 재앙을 겪은 적은 없지만, 내 안의 아이가 항상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다. 나쁜 년.

* 유효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척도, 즉 규범은 과잉이나 결여를 만들어낸다. 이상 현상을 과다나 과소로 표현한다는 것은 규범을 정상의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의 상태, 즉 생리적인 상태는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로서의 상태는 아니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향한 애착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 특정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슬퍼해야 하는 순간 웃는다든가, 웃어야 하는 순간 모멸감이 느껴진다든가, 화나야 하는 순간 즐겁다든가, 기뻐야 하는 순간 우울해진다. 공동체의 감정 - 그런 것이 있다면 - 과 엇갈린 감정을 가진 나는 종종 사이코패스, 아니면 적어도 소시오패스는 아닐지 늘 고민한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흔히 범죄자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런 낙인이 찍혀진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지기 쉽다. 내가 소시오패스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사람들은 ‘아 어쩐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의 나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주시하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은 아마 그들도 잘 알 테지만, 언젠가 어떤 계기로 인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나를 본다. 망할 영화와 뉴스들.

* 우울증, 공황장애, ADHD약을 처방받았다. 약을 먹으면 눈물이 그친다. 사회는 눈물을 필요한 곳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일상에서는 울지 않아야만 ‘정상’의 범주로 들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나에게 눈물과 눈물 없음은 큰 차이가 아니다. 대부분 찰랑찰랑하게 눈물이 몸을 가득 채운 듯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을 넘지 않는 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선을 넘어버린 나는 이곳에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많은 약을 처방받는 순간, 약에 의존해 살지 않으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이 너무 가엾게 느껴졌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 약들이 바로 내가 잘못된 사람임을 상징한다. 눈물 (또는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삶이라니.

* 모든 것들이 결국 코미디처럼 보이면 좋겠어.

* 가라, 가라, 가라, 새가 말했네, 인간이란 종이
버텨낼 만한 진실은 그리 많지 않으니.

지난 때와 올 때가
그랬을 법함과 그려했음이
한 지점을 가리켜, 늘 지금 있는 거기.

[...]

말들 움직이고, 음악 움직인다.
오직 시간 안에서만, 하지만 오직 살 뿐인 것은
오직 죽을 수밖에. 말은, 발화 후에,

침묵에 이른다. 오직 형식, 모형 덕에
말이건 음악이건
정지에 이를 수 있다, 중국 도자기가 잠잠히
그 정지함으로 끝없이 움직이듯. §§†

† 테리 이글턴, 『유머란 무엇인가』, 27쪽 (송성화 역, 문학사상: 2019)
†† (뒤부아레이몽, 1860)

올리버 색스, 『편두통』, 41쪽~42쪽 (강창래 역, 알마: 2019)에서
참조

₩ 테리 이글턴, 위의 책, 45쪽

₩조르쥬 캉길렘, 『정상과 병리』, 71쪽 (이광래 역, 한길사: 1996)의
본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함

₩† T.S. 엘리엇, 『사중주 네 편』, 중 일부 발췌

Courage and Poem

For Agamben, there is no contemporary other than that which appears “through a disjunction and an anachronism” in relation to everything we perceive as our “reality.” To be contemporary, in this sense, would mean obscuring the spectacle of the present century so as to perceive, in that very obscurity, the “light that strives to reach us but cannot.” Returning to the paradigm that concerns us here, it would mean giving oneself the means to see fireflies appear in the fierce, overexposed, overbright space of our current history. [...] This task, Agamben adds, demands at once courage—political virtue—and poetry, the art of fracturing language, of breaking down appearances, of disassembling the unity of time.

—Georges Didi-Huberman, *Survival of the Fireflies* (L’Image survivante)

* An artist has to linger aside profound, invisible pain.

S/he has to grant a name to pain unreachable by the rampaged field of vision, pain that exists yet is nameless. One should pursue work as apparatus, enabling an alternative imagination.

* For quite a while, I thought “courage and poem” as the task of a poet or an artist. And for ages, it was fathomed that Agamben reckoned “courage and poem” as the task of the artist. But once I scrutinized the original text, nowhere did Agamben signify the contemporary as “poet - or artist.” Alone, I solemnly repeated those words in delusion, blurting out with astonishment, “What is courage, and what is a poem? Do not they pinpoint artists’ attitude and art’s form!” All of a sudden, the few tragic years became a comedy. But despite the un-exposure of those phrases, Agamben’s tone is determinate than anyone else when he talks of the contemporary.

...Contemporariness is, then, a singular relationship with one’s own time, which adheres to it and, at the same time, keeps a distance from it. More precisely, it is that relationship with time that adheres to it through a disjunction and an anachronism. Those who coincide too well with the epoch, those who are perfectly tied to it in every respect, are not contemporaries, precisely because they do not manage to see it; they are not able to firmly hold their gaze on it.

To perceive, in the darkness of the present, this light that strives to reach us but cannot—this is what it means to be contemporary. As such, contemporaries are rare. And for

this reason, to be contemporary is, first and foremost, a question of courage, because it means being able not only to firmly fix your gaze on the darkness of the epoch, but also to perceive in this darkness a light that, while directed toward us, infinitely distances itself from us. In other words, it is like being on time for an appointment that one cannot but miss.

—Giorgio Agamben, (What is the Contemporary)

* All pains are personal. Pain can only be coped by the individuals; even the most exceptionally sympathetic beings cannot alleviate pain. It is impossible for other beings to utterly apprehend it in the first place. That is why ostensibly invisible pain is regarded as feigned illness, a big fuss, or super-sensitiveness. That is why pain is ramified into those exposable and un-exposable, excusable and un-excusable in grades a society recognizes. In a fiction I wrote in my childhood for fun, I fabricated a society where the people's pains were measured in numbers and inscribed upon their identification card. The first thing you do when you meet someone is to affirm each other's pain index. And if the opponent's index is higher, you are banned from disclosing your pain to the other. That is a considerable courtesy that leads to getting arrested. As in all other science fictions.

* Clouds move. Chasing them with my eyes, I fainted at last. People swiftly let the bulk of information pass and extract the most essential when perceiving a subject. Upon this, they understand, classify, and define the subject. But I could not. The cloud's subtle discrepancies of color and their noisy motions approach me every moment, reacting with my body. At times, I black out at the intense stimulus, or have a nosebleed. But I cannot control or stop it as I please. People pass by. Their faces do not leave a single trace in my mind. Skin tone and facial expression of a being is not even, and the size of one's eyes changes every moment. According to wind's direction and wetness, hair changes its form. Too much information floods out; people slide by me before I even sort them out. Once, "un-sortable" used to be my pleasure. But when that becomes someone's face, I am misconstrued as "without manners" in the mold of "society." And most of the time, I miss the opportunity to explain. Many bear fear in short encounters. Shouldn't those who invariably treat others with sincerity regard each momentary encounter with value and remember the

faces? I value everyone, but my body reacts differently from my mind.

* I am familiar to adjust the body through consciousness. In bus, people have carsick when they were a child but me. It might sound strange that it's controllable through consciousness, but it's true. I took in a large breath and soothed my stomach. "It's fine, I won't get nauseous." The body soon embraced my thoughts. Perhaps, I strived to absorb the way to adjust my body inside the bus space. I can voluntarily decide how to react by not holding out to the bus's motion and understanding its movement whilst clinging on to myself, being conscious of my body. Whether it be an emotional response or sensual response. It is the conversation between my body and its environment.

* I thought I saw something. No, I didn't think it—I did see something invisible to others. I was bewildered but not frightened to have seen it. Rather, keeping this a secret was what tortured me. If I was the only one, can it be validated? Wouldn't people treat me as an odd, idiotic person? The thought of it entangled my head. It was better to be dubious of myself, whether I did or did not really spot it.

Since then, I zipped my mouth despite the strange bodily feelings every once and then. Once I grew up, these feelings turned into un-negligible agony which could not be diagnosed upon my visits to the doctor. My agony became an unheard, unfelt, unutterable thing. Then how can I describe my pain, my un-diagnosable bodily condition? Is the pain real when it is not there on the surface, with no ways to prove it? Isn't it, perhaps, a lone delusion? It was rather easy to doubt myself. But wouldn't neglecting this distinct and vivid pain be the same as neglecting myself? Do I exist?

* There is a certain pleasure acquired from laughing in the face of death, thus lightly regarding one's finitude. It is to humble death's pride, and to undermine the dreadful power of death that conquers us by joking about death. †

* S/he introduced her/himself: Homo Romance Asexual Androgyn. I did not quibble over the term though it clearly did not make sense. Asexual? Okay. But how can one be Homo Romance without defining their sex? That confusion

may be a matter of course since life is a process of grasping what one is. And I am not as bored as to argue over what person s/he likes, whether s/he wants intercourse with whoever, and whether something that irrelevant to me makes sense or doesn't.

Due to the lack of words to portray her/himself, s/he must have inevitably depicted oneself that way. The convoluted title, *Homo Romance Asexual Androgyne*, lucidly illustrates the extreme course of turbulence s/he underwent and further implies the kind of process these nameless people shall go through from now on. Actually, there is a pertinent word to evenly call those with an unnamed secret or those who pretend to live well, still blind of their own secrets: "Passing."

* Since about my twentieth year, though otherwise in good health, I have suffered from migraine. Every three or four weeks I am liable to an attack. I wake with a general feeling of disorder, and a slight pain in the region of the right temple, which without overstepping the mid-line reaches its greatest intensity at midday; towards evening it usually subsides. While at rest the pain is bearable, but it is increased by motion to a high degree of violence... It responds to each beat of the temporal artery. The latter feels, on the affected side, like a hard cord, while the left is in its normal condition. The countenance is pale and sunken, the right eye small and reddened. At the height of the attack, when it is a violent one, there is nausea... There may be left behind a slight gastric disorder; frequently, also, the scalp remains tender at one spot the following morning... For a certain period after the attack I can expose myself with impunity to influences which before would have infallibly caused an attack. ††

* A linguistic animal is bone-deep a mismatch. ††

* The teacher frowned and considered me bothersome when I raised my hand high. How different that was, from what my father told me when I entered school. Father told me to raise hands to ask the teacher whenever I got curious in class. I abided by his words since he said that makes me a good student. At first, I fidgeted and pondered over raising my hand or not, but when I didn't,

my curiosity was not fulfilled 'til the end of each class. I concluded that it is right to ask. But from a moment, the teacher started raising her eyebrows. The sense of hatred emanating from my teacher made school difficult, and more so since I couldn't find out my fault. After the semester, the following was inscribed on my report card: "Think thrice before raising hands." I'm not sure if it was father who took the world too naively, or the teacher who bore a crammed up mind. Both must have been individuals that thought the world proceeds in unexpected ways. That year, I, as well, learned that the world flows deviant from my thoughts.

* Mother asks me why I remember the ill so long; and if there's anything good left. Strangely, no. The moments that could have been "good memories" are left as those of "strife." I do not know the cause behind my long history of anxiety. No, I might know, but I'm not sure. I feel anxiety when talking in private though it's not even making public announcements. It's the same between family or close friends. At a merry moment my family recalls, I was in anxious conflict over what to say and how to answer. They called me "bitch," "bastard," and "asshole," when my reaction failed. Failure was branded as ill memory, and moments I eluded failure were imprinted as conflicts. Father, who underwent the Korean War at the age of two, recalls he screamed and cried whenever he heard the airplane 'til he entered school. I never experienced a colossal disaster analogous to the Korean War, but I feel like my inner child never ceased to scream and cry. Bitch!

* Excess or deficiency exist in relation to a scale deemed valid and suitable—hence in relation to a norm. To define the abnormal as too much or too little is to recognize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so-called normal state. This normal or physiological state is no longer simply a disposition which can be revealed and explained as a fact, but a manifestation of an attachment to some value.‡‡

* In distinct circumstances, there are times when I have different emotions from others. Laughter bursts out at moments to be sorrowful, tears at moments to laugh, bliss at moments to be furious, disheartenment at moments to be merry.

I ponder whether I am or am not a psychopath; or at least a sociopath, as one who bears deviant emotions from the sentiment of the community—if there is such a thing. Both psychopaths and sociopaths are recognized as criminals. Thus, to be branded that way alludes to being considered as a potential culprit. The moment I confess I may be a sociopath, people respond, “Ah, I get it now...” then fix their eyes on my every behavior and reaction. They would know that feeling divergent emotions do not necessarily lead to committing a crime, but they also do not discard the possibility that I might do so out of a certain trigger at a certain time. Fuck the films and news.

* I was prescribed depression, panic order, and ADHD medication. I stop crying when I take drugs. The society solely approves of tears at necessary sites. In other words, one has to hold back their tears in the everyday so to infiltrate the range of “normal” and live on as a working being. But to me, tears and no tears do not bear considerable difference. I maintain the state of tears most of the times, full to the brim of my body. I can persist in society if it does not overflow, and cannot if it does.

My life seems remarkably pathetic at the moment of heavy prescription; the poor me who cannot be acknowledged nor live on in the society without pills. I am a wrong being. These drugs are the symbols of me being wrong. My life can only exist with tears (or drugs).

* I wish all appears as a comedy in the end.

* Go, said the bird, for the leaves were full of childrens,
Hidden excitedly, containing laughter.
Go, go, go, said the bird: human kind
Cannot bear very much reality.
Time past and time future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
[...]
Words move, music moves
Only in time; but that which is only living

Can only die. Words, after speech, reach
Into the silence. Only by the form, the pattern,
Can words or music reach
The stillness, as a Chinese jar still
Moves perpetually in its stillness. ‡‡ †

- † Terry Eagleton, *Humour*
- ‡‡ (du Bois Reymond, 1860) from Oliver Sacks, *Migraine: Understanding a Common Disorder Expanded and Updated*
- ‡‡ Terry Eagleton, *Humour*
- ‡‡ Georges Canguilhem, *The Normal and the Pathological*
- ‡‡ † Partially cited from *Four Quartets*